

太平洋전쟁의 아지 끌지 않았었다

對日補償청구운동 확산

113
75

신라의 비록은 일본
「한국의도 공전된
남아있지않아, 역사
의소멸되고있다.
태평양전쟁기간중
한국의인민의인력
전대부분을가차부
거침없이 기록과
을인멸한바있다.
이리하고 20만
도하는 여자정신대
살아남아온 사람도
하곤 사람을도 여
치욕스런 과거를습

挺身隊
180-1120호

입을 때지않기때문
장을 요구하는 목
내지못하고 있다.
오카나와를지배한
요성을 보내고있
팔팔의 모자를한
「돌출」인 박해
「당시」의 상황을
도전해지고 있을뿐
5월 4박5일간
루었던 廣福庵며
속을라자 하차의
4세때 부산교의
시 뺨래를 하다가
에게 붙잡혀 포승을
정신대로 끌려갔
「일본」로 끌려갔
을 정신대 이틀트
고거는 5, 6명
과 함께 남방전선
「로서」는
「한국」사정판으로 남방
전에 보내진 인제
그

감춰진 悲史... "20만명 희생"

들을이부대 전부대로 끌고
다나미위안부노를강요했
다.「나는뺨래하기란나
를기름고된노역에동원됐
고저녁이면 야수같은 일본
군장병들의노리가되여야
했다.
따뜻한 나라에서 배를타
먹여주고돈도준다느같은
이성에속아오카나와전선에
끌려갔던 倭寇(倭寇)한(76)
었다.
「지금 오카나와에서 자신
의모친을명을저주하며혼
자살하고있다.
「포연탄우(砲煙彈雨)속의
전선에서 한국인정신대원들
참호안에서 일본군 병사들과
의비참한생활을목격한 중
이다.
전투로부임했던전 한국인
출가형제장 崔昌奎씨(分)는
전선에서 한국인정신대원들
참호안에서 일본군 병사들과
의비참한생활을목격한 중
이다.
태평양전쟁말기 6천명의
노무자와 1백11명의 정신대
유언을붙잡아정전되로 보
냈을을고백한일본인 요시
다.세이지씨(吉田清治 78)
부분의관계자들은아무런죄
는반에서 인하는 시정
들까지무치별로 죄이겼
고말했다. 14년전「조선의
위안부와 일본인」이라는
회수기에서 요시다씨는 노
무자에 동원부장으로 임명
1944년 4월 18세이상의
처녀를 최대한 동원하라는
명령에 따라 몰래만 성숙하
면 15, 16세처녀들까지 끌
다나미를속여 정신대로 내
몰았다고고백했다.
위안부라면 아무도 말을
을사람이없으므로「對馬島
에있는군이병원에 장병부
로 취직하면 월급을 30원
씩받는다」고 속였다느것이
다.그가 속여있던 노무부
대의공적기록을찾지하
각하라는명령에따라 메로
지하나까지 모든 서를발
태웠다느고백도하지않았다.
요시다씨처럼 뒤늦게 파오
를찾고치고 학역에 사회
뜻을표한사람도있지만대
부분의관계자들은아무런죄

日 "羞恥" 기록 철저 인멸 汚辱 "배상요구도 全無"

1990. 04. 10.

빨래터서 끌려간 15세少女 하루 3백명상대도... 生還者 드물어



◇강제로 끌려왔거나 감언이설에 속은 정신대처녀들이 전장으로 떠나는 장면. 일제는 정신대에 관한 기록은 더욱 지히 소각, 동원인원과 사망자 수를 가늠할수도 없다.

채갈도 느끼지않고있는것이
덕후 문제이다.
자20년 파리의 페르
제12회제정연회(페르
에서유수영등이일본
의기록을「정전의」
에나오느다시일본군의고
급참모장사들은정신대동원
을강요한일이라고말했다.
「일본」에는해정신대에관
한기록이없다「는물론
에그「정신대」는살이나
의부장은군보통말의하나
다.보통들은다쳐서현
지면그만이지무슨기록이
필요한가」라고천연스레다
변했다.더욱충격적인것
학역에대해보상을해야하지
않느냐는물음에대한답
한말로는「답변」이다.
「한것이무가있을지.우리
아무나정신대하러갔
다만정체의지민을정
있을뿐이다.